

덕분에, 오늘도 교육 현장은 안전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중대재해 예방 공모전 시상식'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평소 무심코 지나쳐 온 일상의 안전을 재차 확인하고, 안전한 경기교육을 위해 노력한 동료에 대한 고마움을 나타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지난 12일 남부청사에서 '중대재해 예방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인생 한 컷! 삶에서 안전을 찾다'라는 주제로 지난 9월부터 도교육청 관내 전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교육 현장의 각 분야에서 안전한 일상을 위해 노력한 순간과 함께 안전의 중요성을 사진으로 포착해 공감하고자 마련했다.

최종 수상작은 공모 작품 가운데 외부 위원 심사와 온라인 공개검증 등을 거쳐 총 12점을 선발했다. '중대재해'라는 무거운 의미를 가진 단어 속에서도 '안전', '예방'의 중요성을 잘 전달하는 작품으로 선정했다.

수상 작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교육청 누리집 통합자료실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일상에서 안전한 경기교육 문화를 만들고, 실질적인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교육 현장의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추진할 계획이다.

용인문화재단, '송창식·정훈희·함춘호' 한자리에



용인문화재단(이사장 이상일)은 오는 2026년 1월 31일(토) 오후 6시 용인시문화예술평화관에서 한국 대중음악의 거장들이 함께하는 공연 '송창식과 정훈희 그리고 함춘호'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2026년 처인구 문화콘텐츠 브랜드 '만원 조아옹' 시리즈의 일

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새해를 맞아 용인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고품격 공연을 선보이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무대에는 한국 포크 음악의 살아 있는 전설 송창식, 독보적인 음색으로 사랑받은 보컬리스트 정훈희,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타리스트 함춘호가 출연한다.

세 아티스트는 각자의 대표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개별 무대를 펼치는 동시에, 함께하는 무대로 마련해 한 공연에서 다양한 음악적 매력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티켓 가격은 R석 70,000원, S석 50,000원, A석 40,000원으로, 용인시민은 재단의 대표 할인 정책인 '만원 조아옹'을 통해 10,0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람 연령은 초등학생 이상이며, 예매는 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와 NOL티켓을 통해 가능하다. 공연 관련 자세한 사항은 유선 문의하면 된다.

송민수 기자

이천으로 모였다… 두 혁신기업 성과 한자리에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12월 11일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세라믹기술원 반도체기술개발지원사업 성과발표회 및 스타트업 ㈜본플렉스 업무지원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한국세라믹기술원 위탁사업으로 추진된 반도체기술개발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해당 사업을 계기로 이천시로 이전한 ㈜본플렉스가 지역 기반 기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도체기술개발지원사업은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테스트베드를 활용해 기업의 공정·패키징 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당 최대 3천만 원 규모의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올해는 영진아이엔디㈜와 ㈜본플렉스가 참여해 개발 성과를 발표했다.

최근 이천시로 이전한 ㈜본플렉스는

2024년 3월 설립된 반도체 장비 제조 기업으로, Cu-paste용 Sinter Bonder 장비를 주력으로 개발하고 있다. 세계 최초 탄성체 가압 시스템과 Cu-paste 산화 방지 기술을 적용해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대만 전자기기 분야 1위 기업인 폭스콘(Foxconn) 거래 등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이천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향후 매출 증가 및 투자 확대에 대비해 투자유치 TF 운영, 투자유치협력관 지정 등 체계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를 중심으로 기업 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꾸준히 지원해 왔다"며 "오늘 성과를 발표한 두 기업의 노력이 이천의 기술 생태계 확장에 중요한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송민수 기자

‘경기기후위성 1호기’ 성공기념식 열고 위성 위치 첫 공개

13일 경기도서관서 경기기후위성 1호기 송수신 결과 및 위성 위치 첫 공개

천문학자 강연, ‘기후바이브코딩 해커톤’, ‘우주체험존’ 등의 프로그램 진행

경기도는 13일 경기도서관에서 기후위성 성공기념식을 열고 경기기후위성 1호기의 송수신 결과와 위성 위치를 첫 공개했다.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11월 29일 새벽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스페이스X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된 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지상과의 송수신에 성공했다.

경기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기후위성은 성공 기념식이 시작된 13일 오후 2시 반경 남인도양 부근에 위치했으며 행사 종료 시점인 4시경 마다카스카르를 통과했다.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향후 3년간 광학 및 근적외선 영상을 활용해 도시, 농지, 산림 등 토지피복변화를 탐지하고 산사태, 산불, 홍수 등 기후재난 모니터링 등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성공기념식에서는 위성 송수신 결과 및 위치 공개에 이어 ▲전문가(천문학자 이명현) 강연 ▲경기기후바이브코딩 해커톤 수상작 설명 및 시상 ▲"지구를 지키는 10가지 미션"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날 열린 '기후바이브코딩 해커톤'에는 113팀이 참가해 기후데이터와 위성영상 AI 협업 코딩을 활용한 웹서비스를 개발했다.

일반 부문과 전문가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일반 부문에서는 기후플랫폼의 폭염, 기온, 열환경 데이터와 도로 네트워크를 결합한 '열스트레스 최소 경로 추천 서비스'가 대상을 수상했다. 폭염에 덜 노출된 경로를 추천해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등 이동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서비스다.

전문가 부문에서는 'AI 우리동네

기후처방전' 서비스가 대상을 수상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위성 영상과 읍·면·동별 기후 취약 항목을 분석해 맞춤형 기후처방전을 제공한다. 지도에서 지역을 선택하면 AI가 녹지밀도, 침수위험, 태양광 잠재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내 놓은 기후처방전을 볼 수 있다.

수상작들은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실제 서비스로 도민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송민수 기자

수원특레시, 청소년참여기구연합 성과공유회

청소년 3개 참여기구,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정책 등 공동 제안

수원특레시(시장 이재준)는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수원청소년참여기구연합 참여 활동 성과공유회'를 열고 청소년이 직접 개발한 정책을 공유했다.

행사에는 청소년참여기구 소속 청소년과 학부모, 시민 등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청소년들이 조사와 논의를 거쳐 완성한 정책 제안을 공유하고, 활동 성과를 나눴다.

올해 성과공유회의 핵심은 3개 기구가 공동 선정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정책' 발표였다. 제안 정책은 ▲수원시 청소년 의회의 'PM 불법 주정차 개선 방안' ▲수원청소년교육의회의 '전동 킥보드 사고 예방 대책' ▲수원시청소년참여위원회의 '사용자 본인 확인 및 면허 인증 강화'다.

3개 기구 대표 청소년들은 정책 제



안서를 이재준 수원특레시장에게 전달하며 "정책을 수립할 때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재준 수원특레시장은 "청소년들이 지역 문제를 관찰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미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청소년참여기구연합은 수원시 청소년의회, 수원청소년교육의회, 수원시청소년참여위원회로 구성된다. 청소년의 정책 참여권 확대와 의견 반영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의왕교육지원청 신설

김성제 의왕시장이 12월 12일 경기도 교육청을 방문해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의왕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지난 10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설치·분리 권한이 교육감에게 위임되면서 의왕시만의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의왕시는 그동안 관할 교육지원청이 군포시에 위치해 있어 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이 상대적인 소외감과 교육서비스 불균형을 느껴 왔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특성과 정책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의왕시는 현재 다양한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중이며, 향후 초평민간임대주택지구, 월암 공공주택지구, 청계2 공공주택지구,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등에서 대규모 주택공급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35년까



지 의왕시 인구가 25만 명으로 증가하고, 학령기 아동도 증가하면서 교육지원청 신설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시는 그동안 의왕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2024년 7만 6천명이 참여한 대규모 서명운동을 비롯해 의왕교육지원청 신설부지 확보, 임시청사 공간 마련 등 적극적으로 사전 준비를 진행해 왔다.

이번 경기도 교육감 면담 역시 의

왕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면담에서 김 시장은 의왕교육지원청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마련된 의왕시청소년수련관 앞 부지(고천동 90-7번지 일원, 3,187㎡)와 의왕보건소 앞 부지(고천동 103-1번지 일원, 2,635㎡) 중 선택하여 무상 제공할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송민수 기자

광주도시관리공사, 광주시위터

파크 겨울 야외시설 시범운영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최찬용)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겨울 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광주시위터파크 동절기 야외시설에 대해 오는 12월 16일~17일까지 이틀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12월 18일 정식 개장을 앞두고 시설별 운영 안정성, 이동 동선, 안전요원 배치, 고객 의견 등을 사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범운영 대상 시설은 인공아이스링크, 썰매장, 에어바운스, 트램폴린 등 운영 시설 전반이다.

공사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방문 시민의 이용 패턴과 안전상 주의사항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 현장 배치 인력 및 동선 등을 최종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은 특성을 반영해 시설 내 충돌 등 위험 요소 등을 집중 점검하여 안전한 놀이공간 조성에 특히 집중한다.

최찬용 사장은 "정식 개장 전 사전 점검에 만전을 기해 시민들이 믿고 즐길 수 있는 겨울 놀이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보다 완성도 높은 겨울 레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하남도시공사, '가족친화인증

기관' 8년 연속 선정 쾌거

하남도시공사가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을 획득하며, 2017년 최초 인증 이후 8년 연속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해, 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가족돌봄 지원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되는 제도다.

인증은 서류심사, 현장심사, 최고경영층 인터뷰, 직원 만족도 조사 등 단계별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3년 주기로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번 재인증 심사에서는 ▲유연근무제 및 근로시간 운영의 합리성 ▲출산·육아 및 가족돌봄 지원 제도 운영 ▲일·생활 균형 정착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노력 ▲가족친화 제도의 실효성 및 지속적 관리 체계 등 가족친화 경영 전반에서 고른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하남도시공사는 제도 도입에 그치지 않고 직원 참여 중심의 가족친화 문화 확산, 근무환경 개선, 자체 점검을 통한 제도 보완과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89.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얻었다.

최철규 공사 사장은 "8년 연속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조직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아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직원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사랑의 온도탑 제막

‘11억 원’ 모금 목표

파주시는 지난 10일 금촌역 광장에서 사랑의 온도탑 100도시(℃)를 향한 합한 외침과 함께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희망2026 나눔캠페인'(2025. 12. 1.~2026. 1. 31.)의 시작을 알리고 시민들의 기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희망2026 나눔캠페인'은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파주'라는 표어 아래 이달부터 내년 1월 말까지 62일간 진행된다. 올해 사랑의 온도탑 모금 목표액은 11억 원으로, 모금 목표액의 1%(1,100만 원)가 모금될 때마다 온도탑도 1도시(℃)씩 올라간다.

이날 제막식에서는 ㈜비.엘.아이 서경아 대표의 파주시 '제26호 아너소사이터' 가입식도 함께 진행됐다. 또한, 아너소사이터 회원들과 파주상공회의소, 사회복지기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여러 단체에서 참여해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하는 의지를 나타냈다.

김정희 파주시장은 "사랑의 온도탑은 '우리 곁에는 언제나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이웃이 있다'라는 내용을 전하는 상징으로, 온도가 올라갈수록 마음의 온기가 느껴지고 파주시를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드는 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좌에 입금해 기부할 수 있으며, 현물은 파주시청 복지정책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